

“카호우카 댐 붕괴는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악 환경적 재앙”

우크라이나, 강 범람으로 생태계 파괴·지뢰도 흩어져 상류 지역 “농업용수·식수 부족” 농업생산 차질 불가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다목적 댐인 카호우카 댐이 폭발로 파괴된 후 유증이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댐 하류지역은 강 범람으로 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전쟁중에 매설된 지뢰가 흩어지면서 일대가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이다. 상류지역도 농업용수와 식수 부족에 시달려 농업생산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카호우카 댐 붕괴로 인해 드니프로강 주변 환경이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충격은 수십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현지시간) 새벽 카호우카 댐이 폭발과 함께 붕괴됐다. 높이 30m, 길이 3.2km의 카호우카 댐은 저수량은 18km로 미국 그레이트슬트호에 맞먹는 규모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댐을 고의로 폭파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비밀파괴공작) 공

작이라고 규정하며 맞선 상황이다.

댐 붕괴로 인해 드니프로강 하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불어난 물이 흑해로 빠져나가면 강의 수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강물과 토사가 하류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강 주변 습지와 하구 등이 파괴돼 강변 생태계는 치명타를 입었다. 강 주변 동식물군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일리도 수년은 걸릴 것이라고 가디언은 예상했다.

가디언은 카호우카 댐을 대체할 새로운 댐이 건설되지 않으면 하류 지역은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강 범람으로 주변 지역에서 수천채의 집이 떠밀려 내려갔다.

영국 배스대학 토목공학과 모하마드 헤이다자데 교수는 “댐의 붕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인접한 나라에 장기간 생태·환경적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인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이 파괴돼 홍수가 발생. 우크라이나 구조대원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AP=연합뉴스

카호우카 댐 파괴는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악의 생태계 재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스타프 세메라크 전 우크라이나 환경부 장관은 가디언에 “강이 범람하면 서 주변 석유 시설과 농장 등이 침수돼

하류는 농약과 석유 제품 등으로 오염될 수 있고, 이들 오염 물질은 흑해까지 내려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최악의 환경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드니프로강 범람으로 강을

따라 매설된 지뢰 수만개도 함께 떠내려갔다는 점도 문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북 방향으로 길게 흘러 영토를 동서로 나누는 드니프로강을 경계로 공방전을 벌여 왔고, 양측은 서로 진격을 막기

위해 강 주변에 지뢰를 대규모로 매설했다.

그런데 이 지뢰가 강 범람으로 하류로 떠내려가면서 하류지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지뢰가 매설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면 되지만 강의 범람으로 지뢰들이 뿔뿔이 흩어져버리면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댐 상류지역은 수몰 피해는 면했지만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댐이 폭파되면서 카호우카 호수의 수위는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수일 내에 호수 수위가 인근 자포리자 원전의 물 펌프 높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포리자 원전은 이 호수를 끌어다 원자로와 폐연료 냉각에 사용해 왔다.

호수물 공급이 끊겨도 자체 비상용 물탱크가 있어서 수개월간은 별 탈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물탱크 관리도 러시아군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류지역의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도 불가피한데, 이 지역의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등 농업 생산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블링컨 美국무, 수주내 중국 방문 계획

블룸버그 “부분적 관계 복원 시도”...양국 군사적 긴장 속 주목

토니 블링컨(사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수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방중 시기가 아직 유동적이라고 전제하면서 “블링컨 장관이 면담할 고위 관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애초 블링컨 장관은 올해 2월 중국에 갈 계획이었지만, 미국 본토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 사태를 이유로 중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발표할 일정이 없다”면서도 “연기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여건이 허락하면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미중이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



중 재추진에 진전 여부가 주목받았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세라 배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은 전날 중국에서 양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司) 사장 및 마자

오쉬 외교부 부부장과 각각 회담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계획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부분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 3일 대만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미사일 구축함 USS 정훈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며 약 150야드(137m)까지 접근하는 등 미중간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와 중국군 J-16 전투기가 근접 비행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5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했듯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항공기와 선박을) 차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뒤 “머지않아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최빈국 섬나라 아이티, 폭우 이어 지진...“최소 54명 사망”

실종·부상자 속출...총리, 국제사회에 ‘SOS’

강단의 잔혹한 폭력과 콜레라 유행 등으로 주민 삶이 위협받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폭우에 이어 지진이 덮치면서 최소 54명이 사망했다.

6일(현지시간) 아이티 시민 보호국(DGPC)에 따르면 지난 주말을 낀 2-4일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비롯한 곳곳에서 강과 주요 하천이 범람했다.

넘쳐흐른 물이 주택까지 덮치면서 지금까지 51명이 숨지고 1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재민은 4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새벽 아이티 남서부 아브리코 인근 해상에 서 규모 4.9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지진은 아이티 남서부 포트트

루드니프 인근에서 관측된 규모 7.2 지진으로 2천200명 가까이 사망한 2021년 8월14일 이후 거의 2년 만에 일어났다.

아이티는 최근 수년간 극도로 불안한 치안 상황 속에 강간 단분쟁에 따른 강력 사건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 암살 이후 행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고, 입법부 역시 의원들 임기 종료로 해산된 상태. /연합뉴스

中, 日 ‘방사능 지역’ 식품 판매한 백화점에 벌금

중국 광동성 포산의 한 백화점이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200만원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장강일보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포산의 한 백화점이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백화점은 나가노현 등 중국 당국이 방사능 지역으로 분류한 일본의 3개 지역에서 생산한 음료 8종과 젤리 1박스, 과자 10팩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백화점은 지난 3월까지 해당 식품들을 판매했으며 수입 품목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당국은 식품안전법에 따라 이 백화점에 1만위안(약 18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D마사지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욕기인증

주요기능 : 4D마사지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움직임스마트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종온열 / 스마트 시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S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시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움직임스마트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